

홍선종이 동반된 자가면역성 담관염 1예

경희 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김장하*, 김병호, 김정진, 동석호, 김효종, 장영운, 이정일, 장린.

자가면역성 담관염은 원발성 담즙성 간경변증과 조직소견은 같으나 항미토콘드리아항체 음성, 형광항핵항체 양성인 자가면역성 간염의 변형중의 하나이다. 이 질환은 주로 중년 여성에게 잘 발생하며, 점진적인 비화농성 담도염을 초래하여 수년동안 무증상기를 거쳐 피곤함과 소양증을 주증상으로 하여 발견되거나 우연히 혈액학적 검사로 발견되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질환의 원인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고 갑상선 질환, 경피증, 관절질환, sicca증후군, 레이노드 현상등 여러 가지 질환이 동반될 수 있다. 저자들은 병리조직학 및 혈청학적으로 자가면역성 담관염으로 진단된 환자에서 홍선종이 동반된 희귀한 증례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중례) 환자는 35세 여자로서 98년 10월경 피곤함, 소양증 및 황달 있어 개인병원 입원하여 약 20일간 치료받았으나 증상 호전 없었고 98년 12월경 모 대학병원 입원하여 자가면역성 간염, 원발성 담즙성 간경변증 의증으로 진단 받고 치료받은 후 증상호전 되었으나 더 자세한 검사 위하여 본원 입원하였다. 과거력상 조 기폐경이외에 특이사항 없었다. 피곤함, 소양증, 전흉부 불편감을 호소하였으며 이학적 검사상 검은 얼굴외에 특이 소견 없었다. 생화학 검사상 빌리루빈(T/D) 2.4/1.3 mg/dL, 단백질/알부민 8.0/3.3 mg/dL, AST/ALT 125/122 U/L, GGT/ALP 359/501 U/L이었다. 총 콜레스테롤 및 Ig M은 정상치였고 HB s Ag (-), anti HCV ab (-)였으며 채담도조영술은 정상소견 보였다. 환자의 간조직검사 소견은 소엽담관의 '증식(proliferation of small bile ductule)' 및 만성 염증세포의 침윤을 보였으며 이들 변화는 주로 문맥부에 국한되었다. ANA는 speckled pattern으로 1:40의 titer를 보였다. 흉부촬영상 중격동 종괴의심되어 흉부 전산화 단층촬영 시행하였으며 방사선학적으로 홍선종이 가장 의심되었고 근무력증등의 증상은 없었으며 개흉술을 통해 홍선종이 확진 되어 절제하였다. 환자는 현재 ursodeoxycholic acid 복용중이며 외래 추적 관찰중이다.

phrygian cap 내에 발생한 담석 1예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김태오*, 류수형, 이성훈, 강대환, 송근암, 조동, 양웅석

Phrygian cap은 담낭에서 생기는 가장 흔한 발생학적 기형으로 인구의 약 4%에서 발생하고, 담낭조영도에서 약 18% 정도로 발견된다. 이는 체부와 누두사이의 격막의 결과이고 Boyden은 이 선천성 기형을 장막형과 후 장막형으로 분류하였다. 담낭과 연관된 의미있는 임상 증상은 적으며, phrygian내의 담석에 대한 보고는 문헌 검색상 보고된 예가 없었다. 이에 저자들은 간헐적인 통증을 호소한 환자에서 건강 검진상 우연히 발견된 phrygian cap내의 담석 1예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중례 : 44세 남자 환자로 건강 검진상 우연히 발견된 담낭내 담석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동통을 다소 호소하였고 내원당시 혈압은 110/70 mmHg, 맥박수는 78회/분, 체온은 36.2 °C, 호흡수는 20회/분 이었다. 대체로 건강한 편이었고 두경부 소견상 결막은 창백하지 않았고 공막에 황달기는 없었으며 탈수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흉부 및 복부소견상 특이소견 없었다. 말초혈액 검사상 혈액소 14.5 g/dl, 백혈구 6,100/mm³, 혈소판 244,000/mm³이었다. 혈청 생화학 검사상 AST 24 IU/L, ALT 20 IU/L, LDH 320 IU/L, 총 단백 7.2 g/dL, 알부민 4.0 g/dL, 총 빌리루빈 0.42 mg/dL, 직접 빌리루빈 0.05 mg/dL alkaline phosphatase 119 IU/L, 콜레스테롤 156 mg/dl, BUN 11 mg/dL, 크레아티닌 0.9 mg/dL이었다. 단순 흉부 촬영 상은 정상 소견이었고 복부 초음파상에 담낭의 기저부가 다소 수축되어 있었고 그 부위에 후방음영을 보이는 고에코의 영역이 관찰되었다. 내시경적 역행성 채담간 조영술상에 phrygian cap내에 결손음영이 관찰되었다. 간헐적인 동통을 호소하여 본원 일반외과에서 담낭 절제술이 시행되어졌고, phrygian cap내에 담석이 증명되었다.